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7/2 ~ 7/8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인생수업	법륜	휴	6	미술관에 간 붓다	명법	나무늘보는사람들
2	붓다순례	자현	불광출판사	7	나를 찾아가는 명상 여행	정여	맑은소리맑은나라
3	깨달음	법륜	법륜	8	미타행자의 편지	본연	담앤북스
3	맑은 마음 밝은 마음	김재웅	웅화	9	법구경 (영문, 한글, 백말리어 수록)	전재성	한국백말리어학회
5	명상선물	현빈	이출버스	10	불교에서 본 우주	강승환	운주사

www.unjusa.com
운주사 (02)3672-7181

불교의 역사는 전등의 역사

고승열전-전등의 역사

정병성 지음 | 가산불교문화연구원 | 2만5천원



“한량없는 오랜 시절 덕을 닦아서 나면서부터 죽지 않는 법 스스로 아셨네. 편안하고 조용하며 허둥대지 않아 밝게 드러난 모습 미묘하고 단정하고 엄숙했네.”

석가모니부처님의 생애를 가장 장엄하게 읊었다고 하는 <불소행찬>에서 석존의 탄생을 노래한 부분이다.

불교는 2천5백여 년 전 인도의 작은 왕국에서 출생한 싯달타 태자가 큰 깨달음을 얻고 그 길을 세간을 위해 개시함으로써 시작되었다. 그리고 석존이 인도해준 그 길을 따라 깨달음의 빛을 이룬 역대 고승들에 의해 불교는 전승되었다. 곧 불교의 역사는 역대 고승들에 의한 전등(傳燈)의 역사이다. 책은 그 기나긴 전등의 역사를 묶은 것이다.

책은 석가모니부처님을 비롯하여 인도, 중국, 한국의 고승들을 소개하고 있다. 총 5편 60 주제로 구성된 이 책의 첫 번째 내용은 시아본사(是我本師) 편이다. 도상학으로 풀어낸 석가세존의 전기이다.

“석존의 자취를 찾아가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4대 영장의 순례였다. 4대 영장은 탄생지 룸비니와 성도지 보드가야, 초전법륜지 녹야원과 열반지 쿠시나라였다. 마투라에서 출토된 사당도는 탄생·성도·전법륜·열반의 4대 영장에 삼십삼천 하를 더 넣은 것이다. 이후 붓다의 행적에 따라 각각 사상(四相) 또는 팔상도로 표현되었다.”

송광사 ‘팔상량’과 <석시유훈>에 바탕을 두고 석존의 출생과 열반에 이르는 에피소드를 장편별로 흥미롭게 서술하고 있다. 불교교학과 문화의 공부연원(工夫淵源)을 아울러 담지한 필자의 이력이 아니면 만날 수 없는 불타전이다.

불교 교단은 부처님과 제자들, 그리고 그들을 따르고 뒷받침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그들 가운데 천이백오십인의 대성중이 있었다. 하지만 가장 뛰어난 제자가 10



1955년 8월 3일 조계사에서 열린 전국승니대회 기념사진

대 제자와 16나한이다.

제2편은 ‘인도의 고승들’ 편으로, 경·율·론 삼장에 근거한 십대제자들의 행장은 물론 석존을 배반하고 승단의 분열을 초래했던 제바달다의 입장과 비구니 승단의 출현 등을 소개하고, 나아가 대승교학의 천제들인 유마거사와 마명, 중관의 용

총 5편 60주제 석존의 전기 비롯

인도, 중국, 한국의 고승 소개

300 쪽으로 압축한 2500년 불교사

수보살과 유식의 세친조사의 행적과 사상이 일목요연하게 서술되어 있다. 교해(敎海)의 심연과 지평을 자유자재로 순례(巡禮)하지 않고서는 정리할 수 없는 자료들이다.

인도에서 일어난 불교가 유교를 비롯한 뛰어난 사상을 가진 중국에 알려진 것은 중국문화의 기틀이 세워진 서기전 1세기경의 전한 때였다. 책의 제3편은 중국불교를 빛낸 인물들을 중심으로 중국불교의 사상사를 개관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중국에 불교를 안착시킨 석도안, 역경의 세 지평을 연 구마라집, 여산해원과 천태지자 대사, 도선율사, 구법의 화신 현장삼장. 법장화상과 선도, 혜능과 신수, 징관과 종필, 영명연수, 대혜와 광지에 이르기까지 유장하고도 큰 폭의 중국불교사를 파노라마처럼 엮었다.

서기전 5세기경에 인도에서 일어난 불

교가 서역을 거쳐 중국에 알려진 것은 이로부터 5백년이 지나 1세기 남짓한 시기였다. 불교의 발상지와는 전혀 다른 문화 풍토에서 몇 백년에 걸친 이해 과정을 거쳐 불교를 중국적 토양으로 정착시킨 도안 시대에 이 중국화된 불교는 다시 동방으로 전파된다. 마침내 우리나라에까지 불교가 전파되기에 이르는데, 우리나라에 불교가 처음 들어온 것은 4세기 후반인 삼국시대였다. 삼국 중 고구려(소수림왕 2년·372)에 먼저 불교가 전해진다.

제4편과 제5편은 한국의 고승들 이야기로 1700년 우리불교 전등의 역사다.

4편에서는 초전의 아도화상, 원광의 구법과 자장율사, 대륙에 펼친 교한 원죽법사, 불교철학의 정화 원효대사, 사상과 신행의 선도자 의상, 도의선사, 보조국사, 태고와 나옹의 임제선, 서산과 부휴대사의 선풍, 연담과 인악의 강풍, 백파와 초의의 선문을 다루고 있다. 5편에서는 경허선사의 근대선, 용성선사의 대각운동, 석전선사의 교육과 포교, 만공선사의 전통선풍 증흥, 한암선사의 조계종풍 증흥, 만해선사의 겨레와 선, 만암종사의 교단개혁, 효종선사의 구도행, 동산선사의 선율결집, 금오선사의 투철한 선수행, 운허종사의 역경과 교육, 지관종사와 불교대사님으로 마무리했다. 총 300여 쪽에 2500여년의 불교역사를 압축한 책은 교학에 대한 깊은 내증(內證)은 물론 자료열람과 현장답사로 확장된 역사적 사유가 교차하는 필자만의 각별한 공부의정이며, 대중에게는 선물이 다. **박재완 기자 wanholl@hyunbul.com**

“이타적 실천이 해탈의 문”

보현행원품 강의(개정판)

광덕 스님 지음 | 불광출판사 펴냄 | 1만3천원



<반야심경>이 반야 경전의 핵심 사상을 담고 있다면, 보현보살의 열 가지 서원을 담고 있는 ‘보현행원품’은 <화엄경>의 핵심 사상과 이상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다. 책은 광덕 스님이 1989년 9월 불광출판사를 통해 발간했던 <보현행원품 강의>의 개정판이다.

‘보현행원품’은 <화엄경>의 한 품으로, 광대한 보살의 실천을 담고 있는 <화엄경>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으며 <화엄경>의 핵심 내용으로 구성된 입법계품의 정수이기도 하다.

<화엄경>은 크게 1부 화엄과 2부 화엄으로 분류된다. 1부 화엄은 입법계품 이전까지 내용으로 이 부분의 주된 내용은 ‘부사의한 해탈의 세계(不思議解脱境界)’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루고 있다. 반면 2부 화엄은 입법계품 이후에 나오는 내용으로 ‘부사의한 해탈의 세계로 들어가는 보살의 광대한 실천’을 다루고 있다. 그 광대한

해탈의 세계로 들어가는 실천의 길이 바로 보현행원(普賢行願)이다. <화엄경> 입법계품의 내용은 선재동자의 지난한 구도행각을 담고 있는데, 그 구도행각은 ‘보현행원품’에서 끝을 맺는다. 여래의 해탈세계로 들어가자 했던 선재동자의 구도행의 종착지가 다름 아닌 ‘보현행원품’에 나타난 열 가지 실천행이라는 것이다. 문수보살의 설법을 듣고 구법 여행을 떠난 선재동자는 긴 여정을 거쳐 마지막 53번째로 보현보살을 만난다. 선재동자는 마지막 선지식으로부터 해탈의

은 신라시대부터 별해본 형태로 널리 보급됐다. 역불의 시대였던 조선시대에도 언해본이 빈번하게 간행되는 등 위상은 여전했다. 이처럼 ‘보현행원품’은 한국불교에서 위상이 매우 높은 경전이었지만 근대에 들어서서는 한글 번역본이 나오지 않는 등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다가 1968년 광덕 스님에 의해 한글 번역본이 출간되고, 1989년 9월에 <보현행원품 강의>가 발간됐다. <보현행원품 강의>는 1989년 초판 발행 이후 현재까지 34쇄가 인쇄되었으며, 약 5만 3천 권이 보급되었다.

‘보현행원품’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실천해야 할 수행의 길을 제시한다. ‘나’라는 울타리를 넘어 끝없이 증생들을 위해 헌신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와 같이 이타적 실천이아말로 해탈의 세계로 들어가는 신비로운 문이라는 것이 ‘보현행원품’의 요지이다.

1968년 <보현행원품> 한글본 발간

1989년 <보현... 강의> 현재 34쇄

불법은 이론 관념 아닌 ‘실천’ 강조

‘보현행원품’은 이론이나 관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이며 구체적인 행에 있다.”고 했다. 보현행원을 실천하는 때 순간순간 여래의 무한한 공덕은 성취되며, 광대한 해탈의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진다. 이는 우리의 삶을 수행의 삶으로, 사바세계를 보살의 원대한 꿈을 실천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자는 환희심 넘치는 메시지가 <보현행원품 강의>에 담겨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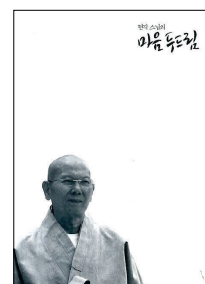
이와 같이 ‘보현행원품’은 매우 중요한 경전으로 평가되어 왔다. 그래서 입법계품에서 따로 떼어낸 ‘보현행원품’의 한문본

박재완 기자

삭막한 일상 채워주는 따뜻한 메시지

현각 스님의 마음 두드림

현각 지음 | 21세기북스 펴냄 | 1만5천원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장 겸 동국역경원장인 현각 스님의 따뜻하고 죽비와 같은 지혜의 메시지를 담은 에세이다. 현대 인류의 삶은 날이 변하고 있다. 단순히 변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하고 험하게 되고 있다. 사회 모든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고, 그 과정에서 인류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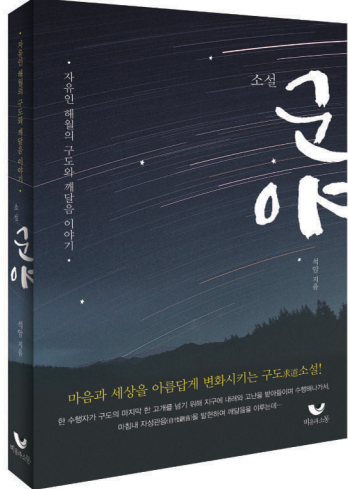
수밖에 없게 되었다. 무엇보다 정신적으로 겪는 어려움이 깊어지고 있다. 시간에 쫓기며 마음이 여유롭지 못하고 메탈라 감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물론 남을 생각할 겨를이 없다. 서로가 서로를 생각할 수 없는 세상, 그렇게 힘들어진 세상에, 그 힘든 세상을 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불가에 귀의한 후 일생을 ‘선’의 깨달음으로 정진해 온 저자 현각 스님이 삭막해져가기만 하는 일상을 따뜻하게 채워주기 위해 지혜의 메시지를 전한다. 2011년 <현각 스님의 선문선답>, <한국을 빛낸 선사사> 이후 3년 만에 내놓는 에세이로, 현각 스님은 우리가 놓치기 쉽고, 간과하기 쉬운 자연의 순간들을 면밀하게 잡아내어 우

리말로 우려하게 풀어내고 있다. 크고 작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두근거리는 설렘을 선물할 줄 아는 <현각 스님의 마음 두드림>은 삶의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것임을 깨닫게 한다.

<현각 스님의 마음 두드림>을 읽고 현각 스님의 문장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어느덧 일상의 아름다움과 한 줌의 여유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현각 스님의 마음 두드림>은 삶의 크고 작은 기쁨과 변화를 아름다운 우리말로 날카롭게 포착해 풀어내고 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변하는 동안, 자칫 우리가 놓치기 쉬운 다양한 일상의 변화를 섬세하고도 아름답게 발견해냈다. 현각 스님의 이야기는 마치 우리가 현각 스님의 일상에 함께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줄 만큼, 감성적이고 수려한 단어로 이를 풀어내고 있다.

박재완 기자



마음과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구도(求道)소설

자유인 해월의 구도(求道)와 깨달음 이야기

소설 **군야** 석암 지음 | 150*210 | 248쪽 | 11,000원

<소설 군야>는 픽션과 논픽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 수행자가 깨달음의 마지막 한 고개를 넘기 위해 지구에 내려와 고난과 고통을 받아들이며 수행해나가고, 마침내 자성관음(自性觀音)을 발현하여 깨달음을 이루고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려고 하는 대원력을 가진 수행자상을 그려나간 것이다. 저자는 석암스님(영구 관음선원장).

대인大人은 천지와 더불어 그 덕德을 합습하며 일월日月과 더불어 그 밝음을 합습한다

동양학의 근본 경전 주역 바로 읽기

주역 개설 최정준 지음 | 신국판 | 232쪽 | 12,800원

한국 주역학의 대가인 대산(大山) 김석진(金碩鎭) 선생의 제자인 철산(哲山) 최정준 박사(성균관대 유학동양학부 겸임교수)는 기업인·공무원 주역교육의 최고 인기강사다. 주역의 형성과 구성체계, 팔괘(八卦)의 성립과 이해, 주역을 읽는 방법, 세계변화의 원리와 점(占), 주역과 천문역법의 관계 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비움과소통 02-2632-8739, buddhaphia5@daum.net

꿈이 이루어지는 낙산사 템플스테이

나를 찾아서, 꿈을 찾아서, 행복을 찾아서 떠나는 여행.

새소리, 바람소리, 파도소리속에 '나'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파랑새와 함께하는 낙산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주소 :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낙산사로 100
전화 : 033)672-2417
홈페이지 : www.naksansa.or.kr